



호날두의 현란한 드리블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29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경기장에서 열린 2009 피스컵 안달루시아 리가 데 키토(에라도르)와의 경기에서 현란한 드리블 테크닉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로페즈 “내가 KIA 수호신”

평균자책점 3.04 잔물피칭으로 시즌 9승째 “15승 목표”... 구톰슨과 원투펀치 역할 톡톡



용병 로페즈가 KIA의 수호신으로 거듭나고 있다.

KIA 타이거즈는 28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원정경기에서 12-2의 강우볼드게임승을 거두며 지난 2006년 4월 22일 이후 처음으로 2위에 오르는 기쁨을 누렸다. 1천192일만의 2위였다.

로페즈는 이날 롯데의 막강 타선을 6이닝 2실점으로 묶고 빗속에서의 한판 승부에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 앞선 23일 광주에서 열린 LG와의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투수가 됐던 로페즈는 하반기 첫 경기에서도역시 승을 챙기며, 4연승으로 시즌 9승째를 기록했다.

시즌 초반 불펜진에서 3경기만 뛰었던 로페즈는 4월 17일 LG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자리를 옮긴 뒤 17경기에 등판해 3.04의 평균자책점으로 9승3패를 기록하고 있다. 두 차례 완투를 비롯해 124와 3분의1 이닝을 소화하며 팀내에서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했다.

결정적인 순간에서의 역투도 돋보였다. 6월 16일 올 시즌 유독 상대전적이 좋지 않았던 1위 두산과의 홈 3연전 첫 경기에서 9이닝을 1실점으로 막으며 완투승을 이끌었던 로페즈는 같은 주 사직에서 열린 주말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다시 선발로 등판했다. 이날 로페즈는 7이닝을 4실점으로 막고 싸늘이 3연패의 위기에 몰렸던 팀을 구했다.

시즌 초반 로페즈의 승운은 좋지 못했다. 4월 17일 LG와의 첫 선발경기에서 14점을 만들어낸 타선의 화끈한 지원 속에 한국에서의 첫 승을 기록했던 로페즈는 이후 6경기에서 승없이 2패만을 기록했다.

두 차례 7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선보이는 등 6경기에서 3.20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지만 팀 타선 불발, 중간계투진의 난조 속에 ‘불운한 투수’가 됐다.

로페즈는 5월 27일 SK와의 원정경기에서 40일 만에 시즌 2승을 챙긴 이후 4연승 행진을 하면서 본격적인 승수 사냥에 나섰다. 타선의 인심도 두둑해졌다.

최근 10차례의 등판에서 평균 6.3의 득점 지원을 받은 로페즈는 2.92의 평균자책점으로 8승1패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6·7월의 치열했던 팀의 순위 싸움에서 안정된 투구로 마운드를 지키며 빅리거다운 실력을 과시한 로페즈는 감독추천으로 25일 광주에서 열린 올스타전 무대를 밟는 영예도 누렸다.

로페즈는 23일 8이닝을 소화했던터라 올스타 마운드에 서지는 못했지만 ‘별들의 잔치’에서 유쾌한 하루를 보냈다. 얼마 전 미국

한도미니카 야구 국가대표 출신의 사촌형 투이스 로페즈가 시즌이 끝날 때까지 KIA와 일정을 함께하기로 하는 등 든든한 지원군도 얻었다. 15승을 목표로 내걸었던 로페즈의 하반기 활약 여부에 따라 가을을 맞는 팀의 표정도 달라질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



호날두 데뷔골...레알은 4강

클럽축구대항전 피스컵 대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4)가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은 이후 첫 골을 터뜨렸고 팀은 4-2로 승리했다.

호날두는 29일 오전(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구장에서 열린 국제클럽축구대항전 '2009 피스컵 안달루시아' 대회 B조 조별리그 리가 데 키토(에라도르)와 2차전에서 후반 3분 선제골을 넣었다.

잉글랜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떠나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 입성한 호날두는 이로써 지난 26일 프리시즌 매치였던 삼록 로버스와 평가전을 포함해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고 출전한 세 경기만에 데뷔골에 성공했다.

잉 포워드로 선발 출전한 호날두는 후반 3분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오른발로 골

망을 흔들었다. 호날두는 5분 뒤에는 아크 정면에서 빠른 강력한 슈팅 상대 골키퍼 맞고 나온 것을 팀 동료 그라네로가 골문 안으로 밀어 넣어 팀의 두 번째 득점에도 이바지했다.

호날두는 레알 마드리드가 3-1로 앞선 후반 28분 라사나 디아라와 교체돼 물러났다.

레알 마드리드는 호날두의 첫 골과 후반 8분 그라네로, 26분 크리스토프 메첼, 45분 네그레도의 추가골로 리가 데 키토에 완승을 거뒀다.

이번 승리로 레알 마드리드는 1승1무를 거두며 조 1위를 확정, 내달 1일 세비야 피스 후안구장에서 A조 1위 유벤투스(이탈리아)와 결승 진출을 다툰다.

리가 데 키토는 조별리그에서 1승1패를 기록하며 조 2위를 차지했고 미드필더 엔리케 베라는 후반 23분과 41분 혼자 두 골을 넣었지만 팀 패배로 빛이 바랬다. /연합뉴스

“U-20 기성용 발탁 더 논의”

홍명보 청소년대표팀 감독

“지금 뽑는다. 안 뽑는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홍명보(40) 청소년 축구대표팀 감독이 한국 축구 ‘불투명’으로 떠오른 미드필더 기성용(20·FC서울)을 200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9월 24일~10월 16일)에 데려가야 할지를 놓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홍 감독은 29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대회의실에서 제4회 수원컵 국제청소년축구대회(8월 2~4일·수원월드컵경기장)를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 시점에서(기성용의) 발탁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 선수 자신은 물론 축구협회, FC서울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홍명보 감독은 “개인적으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기성용 차출은 분명히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원컵이 끝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데이비드 윌터스가 47초59의 기록으로 전체 1위를 차지해 준결승에 올랐다. 강력한 우승 후보 알랭 베르나르(프랑스)는 전체 4위에 해당하는 47초80에 끝내는 가볍게 예선을 통과했다.

한편 미국의 메리 데센자는 이날 열린 여자 접영 200m 예선 4조에서 2분04초14로 골인, 베이징올림픽에서 류쯔거(중국)가 세운 종전 최고 기록(2분04초18)을 0.04초 앞당겨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다. /연합뉴스



유보한 상태다. 홍 감독은 “뽑지 않는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 기존 선수들이 많이 노력했고 감독 입장에서는 그 노력과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100% 안바랄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해왔다”면서 “이 시점에서 결론이 날 수는 없다. 모두 웃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성용이 빠지더라도 전술 변화는 없다. 합류해도 기존 전술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 특정 선수에 맞춰 팀 전술을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홍 감독은 “수원컵에는 일부러 기성용을 부르지는 않았다. 체력적으로 피곤한데 친선 경기까지 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홍 감독은 수원컵 준비 상황에 대해 “현재 대표팀은 80% 정도 완성됐다. 이번 대회를 통해 선수들이 자신의 능력을 보여줘야만 본선 무대에 나설 수 있다”라며 “선수들에게 생각하는 축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회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등 본선 진출팀이 출전한다. 그런 팀들과 경쟁해볼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진흥고 김정훈 봉황기 첫 완봉쇼

13 탈삼진... 세광고 4-0 제압

진흥고가 제39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1회전을 통과했다.

광주 진흥고는 29일 수원구장에서 열린 봉황기 1회전 경기에서 정주 세광고를 4-0 완봉승으로 제압하고 2회전에 진출했다.

양팀의 침묵이 이어지던 3회 진흥고가 무사 만루의 찬스에서 4번 최용제의 싸늘이 3루타로 3-0을 만들었다. 진흥고는 8회말 1사 만루에서 3번 김도현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보태며 4-0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진흥고의 에이스 김정훈은 9이닝동안 3피

안타 1사사구 무실점의 호투 속에 13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며 대회 첫 완봉승을 장식했다. 진흥고는 오는 8월 3일 오후 6시30분 청주고와 16강 진출을 다툰다.

한편 동성고와 순천효천고는 각각 청주고와 휘문고에 발목이 잡히며 1회전에서 탈락했다.

동성고는 29일 청주고와의 1회전에서 에이스 유경국이 2회를 버티지 못하고 4실점(2자책)으로 무너지면서 3-5로 패했다. 순천효천고도 앞서 28일 열린 휘문고와의 경기에서 3-3으로 맞선 7회말 4개의 볼넷을 허용하는 등 뒷심대결에서 밀리며 3-5로 분패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배준모·강용환 자유형 100m 예선 탈락

로마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배준모(20·서울시청)와 강용환(24·강원도청)이 2009 로마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100m 예선에서 탈락했다.

배준모는 29일 오후(한국시간) 이탈리아 로마의 포로 이탈리아 콤플렉스에서 열린 대회 남자 자유형 100m 예선 12조에서 51초54에 터치패드를 찍었다.

대회 조직위원회에 제출한 종전 개인 최고 기록(52초30)을 0.76초나 줄였지만 레이스를 마친 전체 202명의 선수 중 99위에 머물러 16명이 겨루는 준결승 진출은 실패했다. 강용환은 10조에서 52초62를 기록해 전체

117위를 차지했다. 강용환은 전날 열린 자유형 800m에 이어 이를 연속 개인 기록을 깼지만 세계 수영의 높은 벽을 다시 확인했다.

미국의 데이비드 윌터스가 47초59의 기록으로 전체 1위를 차지해 준결승에 올랐다. 강력한 우승 후보 알랭 베르나르(프랑스)는 전체 4위에 해당하는 47초80에 끝내는 가볍게 예선을 통과했다.

한편 미국의 메리 데센자는 이날 열린 여자 접영 200m 예선 4조에서 2분04초14로 골인, 베이징올림픽에서 류쯔거(중국)가 세운 종전 최고 기록(2분04초18)을 0.04초 앞당겨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다. /연합뉴스